

두 남자의 ‘실패’ 보고서

안규철展 8. 29~12. 13 하이트컬렉션
이수성展 8. 29~9. 27 시청각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다른 모든 것들을 영겁의 시간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 내고 있었다. 모든 것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은 화이트큐브에 차고 넘친다. 여전한 절망과 앞선 희망으로, 오지 않은(을) 구원을 기다린다. 실패는 바로 그 지점에 거칠게 머문다.

실패-하기

도래하지 않은 것을 염원하면서 전시장을 가득 메운 절망 가득한 말은 물음표 없는 질문으로 반복된다. 타자화된 바스켓들 서로의 중심을 향해 무심하게 물을 채우는 〈세 개의 분수〉, 바람으로 구르기 시작하나 보잘것없는 힘으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마는 〈바보의 웅덩이〉는 돌이킬 수 없는, 보존할 수 없는 반복으로 그 반복이 (끝나고야 말겠지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형태적 불안의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불안의 근거는 〈돌아가는 두 개의 시간〉을 지나 〈골든 타임〉 앞에 서면 확증된다. 작가가 ‘모든 것’ ‘알지’ ‘말하지’ ‘아무것’의 반복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무리하게 밀어 넣은 이유 또한 감지할 수 있다. 그 시간성 앞에서 작가 안규철의 말은 지금껏 갈 곳 없이 흘러온 듯하다. 누군가에겐 또한 언젠가는 나에게도

절실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주는 무기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 그래봤자 우리는 아니 자신은 또 무기력할 것이라는 어림짐작, 무기력하고야 말 것이라는 절망이 계통 없이 뒤섞여 〈골든타임〉이라는 화석으로 등장해, 처연하다. 그 지점에서 〈돌아가는 두 개의 시간〉의 시계를 다시 돌아보면 작가의 시간은 개별적인 시간 안에서 24시를 끊임없이 분절한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작가가 응시하는 시간들은 연속적이다. 그것이 4월 16일이라는 곡절과 만나는 순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타자의 시간인지도 중요치 않다. 작품을 구성하는 시계 한 쪽이 8시 45분 즉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을 의미하는 것도 순간이듯, 그 순간 바로 옆의 시계가 10시 45분 즉 생존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나치는 것 또한 찰나다. 우연은 반복돼 궤적을 만든다.

결국 안규철이 말하는 실패는 실패했다. 이런 필연성으로 그의 개념은 매끈하지 않다. 벽(움직이는 벽)은 형성태이며, 내려뜨린 와이어(〈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강의 속도감으로 급박하다. 그의 양가적 태도, 우리의 실패를 말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실패하지 않았고, 타인의 구원을 말하지만 타인을 기다릴 뿐 그 정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가 꺼내든 실패라는 카드가 시대적으로 직설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간성을 잊어야 할 사물이 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물이라는 역설이 주는 불편함은 오래 지속된다. 이렇듯 2014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참사 앞에서 그가 드러낸 구원과 희망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관념으로 구축된 질문의 끝에서 정밀한 현실과 만나 버린 아이러니 앞에서 그는 무슨 답을 찾고 있을까. 현재진행형의 실패와 절망이라는 연옥 같은 저주 속에서 그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 앞에서 미끄러지듯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실패를 재료 삼아 불쑥 나타난 또 다른 전시 〈총각 파티〉. 작가 이수성의 “조건을 재료로 삼는” 조각은 최소한의 실패를 노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이다. ‘적절한’ 무(無), ‘지나친’ 죽음과 같은 언어유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실패조차 조건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가정에서 출발한 전시는 여기저기 불쑥불쑥 불친절하게 전시 공간을 나누고 찌른다. 조건은 그 명확한 한계만큼이나 미적 성실성을 보장하지만, 그 성실성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노동의 지평은 근면과 성실이라는 행위 언어와 맞닿아 단순한 일상으로 반복돼 의도된 뻔한 결과를 낳는다. 그가 빚어 낸 구조물들은 노동이라는 개념을 더해 비루하고 설치의

위 · 안규철 〈세 개의 분수〉
플라스틱 바가지, 세라믹 타일,
철판, 전기펌프, 물 가변크기
2014
아래 · 안규철 〈움직이는 벽〉
벽돌 180×600×20cm
2014_전시 제목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작가가 스웨덴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머(Tomas
Tranströmer)의 〈작은 잎
(Leaflet)〉이라는 시의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We see all and
nothing)”라는 문장에서
고안해 냈다.

